

문화와 사회변화를 공유하기

- 2005년 Res Artis 제 10차 총회

글 · 박은영 본지 독일 특파원

예술가 프로그램은 예술가가 창작과정에서부터 타 문화 및 사회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인식의 틀을 변형하거나 확장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형태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그 결실로 창작된 작품들은 진정한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2005년 세계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협회(Res Artis)의 제 10차 총회를 통해 세계화가 진전 될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위/아래 ·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협회의 제10차 총회의 현장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베를린에서 세계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협회(Res Artis)의 제 10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레즈 아티스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기관으로, 50개국의 250여 기관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네트워크이며 1993년 세계 각국의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들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적 포럼의 기능을 위해 창설되었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회원은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국가 기관 및 재단이다. 1993년의 창립총회도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참가자 수가 9개국 21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올해 제 10차 총회에는 42개국의 160여 명이 참가하여, 그간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화예술교류는 사실상 완성된 창작물을 다른 문화와 다른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보여주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예술가 프로그램은 예술가가 창작과정에서부터 타 문화와 직접 접촉하고, 타

사회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식의 틀을 변형하거나 확장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형태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의 결실로 창작된 작품들은 진정한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세계화가 보다 진전될수록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총회를 통해 본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통의 바탕위에서 예술가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 효과적인 지원책, 예술적 내용의 확보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총체적으로 토론되었다. 이번 총회의 프로그램은 총 5개의 워킹 그룹 세션, 6개의 패널 토론, 그리고 예술공간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워킹 그룹 세션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20~30명의 참가자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워크숍 형태로 토론하는 것이었는데, 토론된 주제는 도시에서의 거주프로그램 (urban residencies: art and community), 공연예술에서의 예술가 거주프로그램 (residencies in the performing arts), 초국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예술가들 (artists working in trans-border projects),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의 거주 프로그램: 예술, 자연, 환경 (residences in remote retreats: art, nature and the environment),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을 창설하려는 기관을 위한 시작하는 사람들 (beginners: what to expect and how to succeed) 등 총 5개였다.

워킹 그룹 세션에서는 공연예술에서의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에 한국의 씨댄스 축제 (SI Dance Festival)의 송애경 씨가 발표하였는데, 현재 주로 미술과 문학에 치우쳐 있는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이 어떻게 공연 예술분야로 확장

레즈 아티스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기관으로 1993년 세계 각국의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들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적 포럼의 기능을 위해 창설되었다. 주요 회원은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국가 기관 및 재단이다.

될 수 있는 지의 문제와 공연예술 제작에서 어떻게 거주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특별 세션은 베다니엔 예술가의 집 (시각 예술분야), 소피엔젤레 (공연예술분야) 등 직접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개최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시작하는 사람들 (Beginners) 세션에서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목표는 무엇이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토론되었다.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패널 토론회에서는 이동성 증진 수단들 (Tools for Mobility), 유럽의 문화재원 조달 (European cultural funding), 공동 프로젝트 (Project Share), 재단의 역할 (Role of Foundation), 대안적인 지원기금조달 (alternative grant making), 차이를 큐레이팅하기 (Curating differences) 등 6개의 주제가 논의 되었다. 이동성 증진 수단 세션에서는 온 더 무브(on the move), 유니버스 인 유니버스 (universes in universe) 등 거주 예술가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웹사이트와 아시아 유럽 재단(ASEF)의 문화 포털 사이트가 소개되었다. 유럽에서의 문화재원 조달 세션에서는 유럽의 지원금 제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공동 프로젝트 세션에서는 흥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소개되었으나, 한정된 시간에 너무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재단의 역할 세션은 예술가들과 지원기관 사이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ASEF가 제안한 세션이었는데, 이 세션의 주요 목적은 지원기관과 재단들이 예술가들의 이동성과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션에는 ASEF 외에도 영국, 일본,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이 참가하여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차이를 큐레이팅하기 세션에서는 썸지 스페이스의 관장이자 2006년 광주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인 김홍희 관장이 썸지 스페이스에서의 성공적인 작가 교류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다양한 주제와 카테고리, 현대의 시각예술을 성공적으로 전시해 온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 세션에는 예술가의 집 베타니엔, 세계문화의 집, 태국 프로젝트 304, 호주 아트스페이스, 미얀마 문화예술 네트워크 단체 등이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열린 자세로 추진하는 바람직한 교류를 위해

이번 레즈 아티스 총회를 조직하고 주관한 기관은 우파 파브릭(ufaFabrik)이라는 문화공간이다. 우파 파브릭은 원래 독일 최대의 영화제작소였던 UFA 스튜디오의 필름현상소를 시민들의 주도로 1979년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곳인데,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 환경친화적 생활방식을 통합시키는 시민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공간이다. 특히 베를린에서 아시아 태평양 주간과 베를린 아트 포럼이 열리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어 참가자들이 베를린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또한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문화작업 공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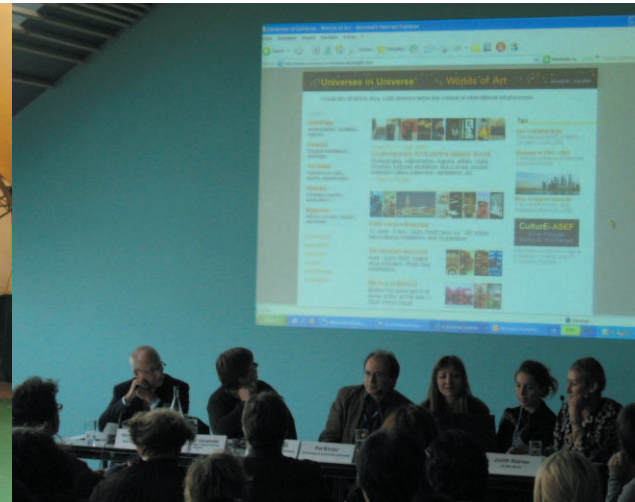


문화작업공간을 방문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체험한 참가자들

오른쪽 페이지 위/아래 · 각종 문화예술 네트워크 단체들이 참가하여 토론을 벌였다.

브뤼셀 성 (Schloss Broellin), 독일 국경에 인접한 폴란드 스체친 (Szczecin) 등을 방문하여, 동유럽 문화기관과의 교류 가능성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번 총회는 베를린 수도 문화기금, 베른하르트 왕자 문화기금, 포드재단, 브란덴부르크의 문 재단, 아시아 유럽 문화재단 등 많은 문화재단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아시아 유럽문화재단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이번 총회가 젊은 작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여기고 일본, 중국,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지원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총회는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과 지원기관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호주 총회에서부터 아시아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총회에는 26명의 아시아 대표가 참여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에 보다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배경과 관심사가 매우 상이한데다가, 주제도 광범위하여 세션에 따라서는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각자의 기관 소개에 머무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워킹그룹 세션에서는 한 주제에 배당된 시간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하여 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2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제대로 질문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총회 이전에 미리 이메일이나 인터넷 포럼 개설 등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정보교환과 기본적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을 텐데, 주로 한정된 시간에 쫓겨 주제 발표와 기관 소개에 그치고 말아서

이번 총회는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과 지원기관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호주 총회에서부터 아시아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6여 명의 아시아 대표가 참여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큰 아쉬움을 남겼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같은 워킹 그룹에 배정된 기관들 간에도 성격과 규모가 매우 상이하여 네트워크의 효과가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참가자들이 보다 내용적으로 충실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더 소규모로 비슷한 목표와 업무를 가진 기관들을 워킹그룹으로 엮고, 그룹 간 토의와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베를린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주간에 올해의 중심 국가가 한국이어서 이번 총회 개최기간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았다. 아시아 태평양 주간 행사에서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세계문화의 집은 공연이나 전시의 기획 단계부터 예술가들을 초청해 제작 과정 전반을 협의하여, 기존에 있던 작품이 아닌 최초이자 유일한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기관에서 한국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기에 이 총회가 실시된 것은 절묘한 행운이라 하겠다.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들이 한국과의 교류에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기관들도 보다 열린 자세로 다른 나라 작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계기를 얻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